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농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폭염 대응 조치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권구형)은 8월 28일(금) 강원 춘천시 소재 이주노동자(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현장에 대하여 폭염 대응 조치 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지역은 최근 8월 초순 폭염중대경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폭염주의보 등의 특보가 발령되고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노출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점검은 비닐하우스 내 작업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물, 휴식 제공 등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① 시원한 물 제공, ② 냉방장치 설치·가동,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부여,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②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③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폭염 작업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냉풍조끼를 직접 전달 하였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폭염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폭염 취약 노동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였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락 (033-269-3580)
		담당자	근로감독관	원해인 (033-269-3526)

